가족돌봄 청년 자립지원 본격 나서

전북자치도-월드비전 전북본부, 업무협약 체결
1차 조사 111명 발굴… 청년 160가구 5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가 손을 맞잡고 간병 등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당사자들이 미래준비와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김동혁 월드비전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 홍보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지원사업 추진 △그 외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가족돌봄 청년들이 성장시기에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와 가사를 장기간 책임지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학습 기회 제약 등으로 본인의 자립을 저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김동혁 월드비전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또한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여에 걸쳐 13세이상 39세 이하 청(소)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일과 간병 수발 등 돌봄행위를 하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실시해 1차적으로 106가구 111명을 발굴해냈다.

도는 또 오는 4월중에도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들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은 가족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면서 본인의 자립이 지연되고 있는 34세 미만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족돌봄 청년 160가구에게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10가구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혁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장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하여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게 된다면 큰 지지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 청년들이 짊어진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구온난화 현실에 맞춘다'
전북자치도, 수종 갱신 '박차'

국공유림 중심 갱신 작업 · 사유림도 갱신 적극 권장중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앞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점점 다가오는 지구온난화 현실에 맞게 아열대성 조림과 갱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북의 산림은 44만ha로 전국 산림(629만ha)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국유림과 공유림이 23%와 7%이고, 69%는 사유림이다.

시군별 면적을 보면 완주군과 진안군이 각 13%로 가장 많고 무주군(11.7%), 남원시(10.5%), 임실군(9.4%), 장수군(9.1%) 순이다.

수종별로 보면 침엽수가 50%, 활엽수가 25%, 혼효림이 25%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지구 온난화로 제주도에서나 자라던 수목들이 이제는 내륙의 온대 남부지역에서 공원수나 가로수 등으로 식재되는 등 난대 산림 수종의 북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자치도도 산림청과 발맞춰 10~20여년전부터 공유림과 국유림 지역에서부터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수종 테스트와 조림과 갱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맞는 수종으로 가시나무류와 후박나무를 공시수종으로 선정해서 전주 등 3개 지역에서 조림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사유림 소유주들에게도 이러한 아열대 수종 변화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현지 산림과 지역 기후에 맞는 수종 갱신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에 따른 난대 수종의 북상 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자원화 대책을 서두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도 난·아열대 산림 생명자원을 육성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에는 난·아열대 산림연구소내에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스마트온실'을 구축하고 난·아열대 생명자원 증식과 활용 기술 등 개발에 힘쓰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아열대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도내 국공유림 중심으로 산림수종 갱신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사유림에도 아열대성 나무의 조림도 보다 더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도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갖춘다

지역 정보통신기술기업 '아이트론·첫눈·우리아이오·모스터일렉'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 4개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9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추후 도비 6억6,000만원을 편성해 총 16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역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역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경영 자문 △홍보 지원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해 기업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사업화 분야(2024~25년)에서 2개 기업(아이트론, 첫눈),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분야(2024년)에서 2개 기업(우리아이오, 모스터일렉) 총 도내 4개 기업이 제출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주요 과제 내용은 △㈜아이트론의 '응급상황 대응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화', △㈜첫눈의 '고령자 스마트(smart) 돌봄 서비스 개발', △㈜우리아이오의 '생체정보 기반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모스터일렉의 '전지 성능 유지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인공지능?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주로 활용하는 과제들이다.

도는 선정된 과제들이 사업화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 시 도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기관과 함께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무료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 이달부터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컨설팅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도내 사업장이 약 2만 곳이 추가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용어로 이뤄져 있고, 소규모 민간 사업장이 법적 의무사항을 자력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장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 기본정보, 운영수준 현황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 방안 마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개선 대책 제시 등으로 추진된다.

현재 도는 14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대상 사업장 70여 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외에도 컨설팅을 희망하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추가 신청도 가능하니 사업장 소재지의 해당 시·군 중대재해관련부서에 신청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063-280-2782~3)로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통해 영세한 사업장에서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생물테러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

행사장 내 공기포집 후 고위험병원체 6종 검사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주요 축제·행사 시 생물테러에 대응해 도민 안전 및 생명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전북에서 다양한 국제행사 등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생물테러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생물테러는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사람, 동·식품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주로 탄저균, 페스트균, 야토균, 유비저균, 브루셀라균, 두창바이러스 등과 같은 고위험병원체가 이용된다.

전북에서는 올해 5월 국제영화제, 8월 세계소리축제, 10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등의 국제행사들이 개최되고, 따뜻해지는 봄을 시작으로 청보리축제(고창), 춘향제(남원), 반딧불축제(무주), 치즈축제(임실), 국화축제(익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예정돼 있다.

연구원은 주요 행사장에서 공기포집 후 고위험병원체 6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생물테러 발생을 감시하고 있다.

감시결과 생물테러 병원체 검출 시 즉시 행사관계자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